

DJ·盧정권은 영남 배려 이명박정권은 호남 배제

비서관급 이상 참모 전무...靑 개편 지역안배로 소통해야

이명박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청와대 및 내각의 인적 개편이 급류를 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이를 주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인적 개편에서 쇄신과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그동안 외면당했던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면서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권의 핵심'이자 '소통의 상징'인 청와대 인사에서부터 국민 통합을 위한 '쇄신과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들어간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이 극소수에 불과했고,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은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한 전 정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광주·전남지역 민심의 '소외감'을 가중시켜 왔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영남출신의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 카드를 통해 지역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에

전력을 기울였다.

참여정부에서도 문재인(영남), 이병완(호남), 김병준(영남), 정찬용(호남) 등 청와대 핵심 참모진에 영호남인맥을 적절하게 안배하며 지역 갈등 해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청와대 개편에서도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지 않는다면 지역 갈등이 확산하는 등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민 통합은 사실상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이번 청와대 인사 결과는 광주·전남을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가능자가 될 것"이라며 "광주·전남지역 출신을 과감하게 발탁, 지역 민심과 거리를 좁히고 국민통합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개편 이후 실시될 개각에서도 광주·전남지역 인맥의 과감한 기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이만희 환경부 장관, 장태경 농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현직에 있지만 쇄신과 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보

다 핵심적인 요직에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들을 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관급 등의 후속 인사에서도 지역 출신 인사들을 적극 배려해 광주·전남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이 줄줄이 몰락하고 중앙 부처에서는 지역 인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적 개편의 결과는 광주·전남지역 민심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정용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패배한 원인은 호남권 출생민의 민심 이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호남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각계 파워 엘리트 인사에서 호남 출신을 적극 등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호남 민심은 이윽만 당했다는 배신감으로 불신의 폭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



이미경·김기정·김재균·이용섭·최영희 의원 등 민주당 4대강사업 저지 특위 영산강사업검증팀 소속 국회의원들이 8일 오전 영산강사업 구간인 승촌보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당-시·도 영산강 조율 실패

간담회에서 현격한 입장차

민주당이 영산강사업에 대해 광주·전남시 및 전남도와 간담회를 갖고 대안 찾기에 나섰다. 현격한 입장 차만 노출한 채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전남도는 여전히 사업 강행의지를 보였고, '민주당 4대강 저지 특위'는 모두발언을 제외한 간담회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할 만큼 조율 자체가 어

려움을 내비쳤다.

또 간담회가 벌어지면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일정을 이유로 먼저 자리를 떠 "맥빠진 간담회"가 됐다. 이에 따라 향후 4대강 사업 관련 민주당 내부 논의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4대강 저지 특위'는 8일 오후 2시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이미경 특위위원장과 김기정 의원(영산강감정), 강은대 광주시장, 박준영 전

남도지사, 환경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사업 간담회를 가졌다.

모두발언에서 이미경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 수질·수량 확보 및 홍수 관리 부적절, 보 건설이나 댐 높이기 사업 등 토목사업 재검토, 수질개선·환경살리기

이러며 "추가공사를 중지시키고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하겠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박 지사는 "영산강사업은

이미 2004년부터 민주당이 전남도지사 공약으로 만들어준 것으로, 상류는 건전화되고 하류는 토사가 쌓여 강 자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 이유"라며 "민주당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나 영산강문제에 대해서는 조율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으며, 지금 계획한 것이 완전하지 못한 만큼 슬기롭게 보완·수정해 대처하길 바란다"고 영산강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시장은 "영산강사업의 선수가 잘못됐다. 수질악화의 원인인 광주의 하수 정비와 셋강 및 소하천 수질 개선이 먼저"라며 영산강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을 주장했다. 모두발언에 이어 2시간30분동안 계속된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환경단체와 교수, 민주당 의원 등은 박 지사에게 영산강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박 지사는 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방이 되풀이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특히 '보' 건설과 관련해 주장이 엇갈려 접점을 찾거나 합의도출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

새 대통령실장에 임태희

신임 대통령실장에 임태희(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정됐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8일 "이명박 대통령은 임 내정자가 국민소통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청와대 참모진의 수장인 대통령실장 인선이 완료되면서 수석 비서관 등 참모진 개편도 이르면 오는 11일,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이뤄질 전망이다.

54세의 임 내정자가 대통령실장으로 확정됨에 따라 오는 14일 개최되는 한나라당 지도부 선출과 이달 중순으로 전망되는 국무총리 등 내각 인선에도 '세대교체' 바람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이 줄줄이 몰락하고 중앙 부처에서는 지역 인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적 개편의 결과는 광주·전남지역 민심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
보통고 특례제 실시
보통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보통고등학교

과 서민친화라는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고 중도실용과 친(親) 서민정책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해 대통령실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수석은 이어 "임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이념적으로도 합리적 중도성향으로 당정 및 국회 관계가 원만하고 대화와 조정 능력을 통해, 이 대통령을 보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구(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인 임 내정자는 관례에 따라 조만간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태희는 수석 인사로 마무리되면

F3대회도 영암서 열린다 11월에...향후 5년간 개최

전남이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오는 10월 영암에서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열리는 데 이어, F3(포뮬러쓰리) 국제자동차경주대회도 11월 개최가 확정됐다.

8일 F1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F1 대회 한국 운영법인인 KAVO는 11월 넷째 주 영암 경주장에서 'F3 코리아 슈퍼프리(Fomula3 Korea Super Prix)'를 개최기로 확정하고 조만간 공식 발표한다.

이번 대회는 전남도가 지난 2008

년 F1 경주장 사후활용을 위해 맺은 'F3 코리아 슈퍼프리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협약'에 따른 것으로, 향후 5년간 영암군 경주장에서 F1 대회가 끝난 뒤 열린다.

한국대회는 전 세계 F3 리그 우승자들을 초청해 자웅을 겨루는 '왕중왕전'성격의 이벤트성 대회로 치러질 예정으로, 전남도는 국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첫 대회는 마카오 대회가 끝난 뒤인 오는 11월 26일부터 3일간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F3대회는 = 국제자동차연맹(FIA)의 규정을 따르는 1인승 오픈휠 레이싱 전용 경주차 종목으로, F1, GP2와 함께 포뮬러 자동차경주의 주축을 이루는 종목. 경주차(2000cc급 4기통 엔진) 성능을 제한해 제조기술 보다는 드라이버의 능력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게 특징. 개별국가 리그 중심의 대회지만 F3 유로시리즈나 마카오 그랑프리 등 국제적 성격의 대회도 치러진다.

학교실업 56주년(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쁨으로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및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세계를 누비는 일이다. 신화적 나라의
DYNASTY COUNTRY CLUB
명품 골프장
다이너스티CC